

언론중재위원회

「제1차 공무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오진완
서울시청 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장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2013년 제1차 공무원 교육과정」에 서울시 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참가하여 3월 7일부터 8일 양일간 교육을 이수하였다.

공무원들에게 언론이라는 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책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과제임이 분명하다. 때마침 언론과 시민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며 서울시 공무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기대를 하고 교육에 임하게 되었다.

1일 차 첫 시간은 ‘언론현장 및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로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이 언론환경에서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 풍부한 자료와 분석으로 설명해 주어서 미디어 환경변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빅 데이터의 환경, 소셜미디어와 미디어 생태계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고 이에 필요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언론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언론사 견학코스로 동아일보사에서 운영하는 신문박물관을 둘러보았는데 우리나라 신문의 130년의 역사와 발자취를 한눈에 조망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시대별로 전시된 신문들, 그 속에서 파란만장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고 당시의 중요 사건과 역사현장이 살아 있는 듯했다.

오후에 ‘공무원현장의 갈등·분쟁과 대체적 분쟁해결(ADR)’ 시간은 정준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이 강의해 주었는데 공무원현장에서 왜 ADR이 필요한지를 ADR의 기법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법원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조정과 중재를 통한 해결노력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 방법이라는 메시지에 공감하였으며 공무원현장에서의 적용은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하였다.

2일 차 교육에서 송동헌 Strategy Salad 부사장이 ‘Social Media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주제로 아직도 공무원들에게 익숙지 않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나타나는 소셜미디어의 속성을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소셜미디어에 대응하는 문제점으로 일방향적이고 수직적 소통을 바라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이 따끔하게 들렸다.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 이재범 수시교육팀 차장이 ‘언론대응전략 및 언론피해구제’를 사례 중심으로 문답형으로 강의해 주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쉽게 이해되었으며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었다.

마지막 시간은 ‘정책홍보와 설득의 스토리텔링’ 주제로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가 다년간 기자 생활과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활동을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한 지식을 전해 주었다. 보도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는 것인지, 홍보체계, 홍보전략과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다양한 사례를 섞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모든 시간이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내용이며 교육프로그램 설계에 많은 공을 들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런 전문 언론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홍보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피해 예방 및 구제 방법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끝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을 위해 유익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주신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